

농촌거주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문화기술

안 효 자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Ethnography on the Adaptation Processes of Japa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to Community in Rural Areas

An, Hyo-Ja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describe cultural meanings for married Japanese immigrant women in rural Korean communities. **Methods:** The informants were 10 women in rural area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017 to June 2018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analyzed using text analysis and taxonomic methods developed by Spradley. **Results:** The meanings of adaptation were classified into five cultural domains: Practicing the doctrine, accepting the difference, redemption, true home, and confronting reality. The subthemes according to meanings of adaptation were comprised of international marriage with a sense of calling, bearing with sense of duty, and making a living substantively. The subthemes in this study reflect the process of adaptation. The cultural theme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were overcoming differences and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to achieve true family. **Conclusion:** The adaptation processes of married Japanese immigrant women included making their living reality known and recognizing the times when exchange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cannot exist within a hostile composition.

Key Words: Emigrants and immigrants; Women; Social adjustment; Anthropology, Cultural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 본격화된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시작되는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2017년 말까지 결혼을 통해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약 13만 명에 이르며, 국적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체류 이주 집단과는 달리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한국사회에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가정 폭력과 고부 간의 갈등, 자녀의 학교부적응, 가정 해체 등[2,3]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주요어: 이민 · 이주민, 여성, 사회 적응, 문화기술

Corresponding author: An, Hyo-Ja <https://orcid.org/0000-0002-1890-4062>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185 GeonJae-ro, Naju 58245, Korea.
Tel: +82-61-330-3586, Fax: +82-61-330-3580, E-mail: callm68@hanmail.ne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o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s.

Received: Sep 28, 2018 | Revised: Dec 4, 2018 | Accepted: Dec 9,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5], 결혼이주자의 출신국의 문화적 특성과 결혼에 대한 동기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1990년대 전후로 종교단체를 통해 다수가 한국에 입국했고, 현재 1만 3천 명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8.6%(3위)를 차지하고 있다[1,2].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 결혼이주여성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저개발국가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로 이동한 추세라면,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이고 일본인 여성의 자유의지에 따라 국제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2,6]. 다음은 일본은 한국을 강압적으로 지배했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로 양국은 갈등의 구조 속에 놓여 있어 국제결혼이주자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능력과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문제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하며 특히, 한국 거주기간에 비해서 한국국적 취득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7,8]. 이들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모국인 일본사회에서도 유대감이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해 이중차별을 겪으며 고립된 삶을 산다고 하였다[6,8]. 따라서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과 현재의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적응은 결혼의 동기, 한·일 관계, 거주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결혼 동기에 있어서는 종교 또는 자유연애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종교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자유연애로 결혼한 경우보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6], 종교가 가족의 통합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이 있었다[9].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정치적 문제로 심리적 위축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10,11], 그들의 자녀 역시 한·일 역사와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과 학교적응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12-14]. 이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갈등과 오해, 불분명한 문화적 정체성 등[2,15]에 한·일 간의 문제가 부가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초기에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거주했는데[7,8], 농촌은 도시보다도 문화적 차이와 한·일 간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월등히 높고, 부부 간의 갈등, 대처방법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2,3,11].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농촌에서의 삶은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와 종교가 개입된 복합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

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행동과 언어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가치, 신념, 태도 및 행위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화기술지는 특정 집단 내의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구성하고 경험을 해석 하는데 사용하는 지식이 문화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구성된 환경의 맥락에서 인간생활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16,17].

본 연구자는 결혼의 동기와 적응에 있어 역사적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농촌에서 어떤 신념, 행동, 상호작용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통해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의 의미와 적응과정을 파악하여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역적응을 돕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과정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하여 이들의 시각에서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농촌거주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한 적응의 의미와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러한 행위가 구성되는가?” 등의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농촌거주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적응의 의미와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 미시문화기술지이다.

2. 정보제공자 선정

연구의 주정보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는 J도 일개 지역의 농촌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 가능한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이며, 연구자의 지인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정보제공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10명이었다. 그 외에도 정보제공자의 남편

1명과 정보제공자로 포함되지 않은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딸 1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보건진료소장 그리고 이웃 등의 총 6명을 일반 정보제공자로 포함시켜 대면 또는 전화 면담을 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이 시행된 지역은 한국사회에서 농촌 내 미혼남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2000년대 초기 이전에 국제결혼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지역농민회를 중심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역농민회는 회원인 농촌총각의 미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의 선교활동과 연결되어 일본과 필리핀 여성들이 다수 입국하였다. 현재 그들의 자녀들은 청소년층이 다수이고 심지어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를 다녀온 경우도 많다. 해당 지역은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 평균 3배 정도 높다.

본 소속 대학에서 2010년도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수의 일본인 자녀들이 참여하였다. 그때 농촌 지역의 특성상 프로그램 장소까지 교통편이 불편해 연구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가정까지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 어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알게 되었다. 또한 그 지역에 연구자의 농장이 있어 정보제공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태도, 표정 그리고 주변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보제공자는 평범한 한국농촌의 가정주부와 다르지 않았고 인사를 나눌 때는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8월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2018년 6월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사회학적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정보제공자와 일반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면담 횟수는 1~3회, 소요시간은 90분 내외였다. 면담 장소는 정보제공자의 편의와 녹음이 가능한 장소로 연구자의 연구실, 커피숍, 일하는 장소, 정원 등이었다. 참여관찰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정보제공자의 가정, 생활환경, 이웃들과의 관계, 자치활동, 교회활동 등이었다.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먼저 정보제공자와 가족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했다. 관찰한 내용과 심층면담에서 느낀 점은 현장일지로 작성하여 분석 시 활용하였다. 사회학적 조사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논문, 통일교에 대한 책자[18], 일본에 대한 만화[19] 등을 이용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기술적 질문, 구조적 질문, 대조적 질문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보제공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다. 면담에서 주 질문은 “한국의 농촌 지역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까?”이다. 그리고 보조질문은 Lee [20]의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연구를 참조하였고 면담을 하면서 새로운 관찰과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하였다. 보조질문은 “지역사회 모임, 학부모 모임 참여여부와 그때 어떤 경험과 상호작용을 했습니까?”, “일본인으로서 지역주민 또는 친척 가족들로부터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등의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대한 연구로 성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남성이 포함되지 않는 여성 단일군으로 자료분석이 진행되었다. 면담자료와 관찰자료는 현장에서의 분석과 전사한 후 자료분석의 두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과정에서 반영적 성찰을 지속하면서, Spradley [21]가 제안한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및 주제분석을 적용하여 자료수집과 분석을 반복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영역분석은 비구조적 질문과 참여관찰을 통해서 문화적 장면에 관한 자료를 얻은 후 시작하였고 기술적 질문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영역분석을 위해 종교, 행위, 신념, 가족, 언어, 역사, 공간, 관계, 경제, 행위, 음식, 대처, 건강, 사건 등의 요소들과 이 요소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시간’, ‘원인-결과’, ‘포함관계’ 등으로 분류 틀을 구성하여 파악하였다. 잠정적으로 분류된 영역 중에서 정보제공자의 ‘국제결혼의 동기’, ‘종교를 접하게 된 계기’, ‘농촌에서의 생활 방식’, ‘이웃과의 관계의 종류’, ‘농촌에서의 활동 종류’, ‘반일 감정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선정하여 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분석에서 찾아낸 범주들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종교 활동, 한·일 역사, 대처행위 등을 정보제공자 간에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대조하면서 성분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절차를 통하여 의미영역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인 개념을 찾기 위한 주제분석을 하였다.

5.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확인은 Lincoln과 Guba

[22]가 제시한 진실가치, 전이가능성, 일관성에 근거하였다. 진실가치(truth value)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정보제공자의 거주 지역을 장기간 참여관찰하고 정보제공자와 주변인을 만나 심층면담 및 일반면담을 하였다. 연구자의 선 이해와 가정을 괄호 치기를 하여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의미구조에 대해서 5명의 정보제공자에게 자신들의 경험이 잘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반영적 읽기를 하여 최종 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연구의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위해 정보제공자의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충분히 한국 농촌에 거주 경험이 풍부한 정보제공자들로 선정하였고, 정보제공자 간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조건에 있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 3명에게도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자료분석에서는 연구자의 일차 분석을 거친 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분석과 비교하고 다문화이해를 교육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음으로써 분석된 자료의 일관성(consistency)을 확인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IRB: 10407 08-201707-SB-028-02) 승인을 받고 시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정보제공자들을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정보제공자를 선정하였다. 정보제공자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면담 도중 불편한 감정 및 부작용이 유발될 경우 정보제공자는 언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가 원할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제공자에게 면담내용은 녹음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된 동의를 받았다. 특히,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정보제공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의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일반 정보제공자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 그리고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심층면담을 녹음한 2명의 일반 정보제공자에게는 서면 동의를 받았다. 대화내용을 녹음한 정보제공자와 일반 정보제공자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 수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으며 연구가 최종 종료되었을 때는 즉시 폐기시킬 것이다. 연구참여 시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조건으로는 긴 면담 시간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

운 주제에 관한 응답 등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정보제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신 부호로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는 10명이며, 거주기간은 평균 21.5년이고 자녀는 3.1명이었다. 정보제공자의 친정가족들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80.0%가 반대한 반면에 한국인 시부모로부터는 70.0%가 환영받았으며, 결혼 초기에는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갔으나 현재는 50.0%만이 주 1회에 나가고 있었다. 한·일 역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대부분이 직·간접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였고 80.0%가 일본 국적을 유지하였다. 경제적으로는 70.0%가 어렵다고 하였고 대부분 농사 또는 비정규직에 종사하였다. 건강상태는 70.0%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모두 한국에서 살고 싶거나 살아야 된다고 하였고 자녀 역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영역 5개, 범주 13개 그리고 속성 44개이며, 적응의 의미와 관련된 문화적 영역은 ‘교리 실천’, ‘차이 수용’, ‘대신 속죄’, ‘참 가정’, ‘현실 직시’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자의 적응의 의미에서 반복되는 속성은 한·일 갈등과 참 가정이다. 따라서 문화적 주제는 ‘한·일의 차이와 갈등을 수용하고 참 가정을 이루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은 ‘소명감으로 국제결혼하기’, ‘사명감으로 버티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기’였다(Table 1).

1. 교리 실천

정보제공자의 적응의 첫 번째 의미는 통일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범주는 ‘교리 수용하기’, ‘교리실천 준비하기’, ‘교리로 무장하기’이다. ‘교리 수용하기’는 ‘종교와 만나기’, ‘교리에 매료되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무장하기’, ‘원수나라에 용서받기 위해 희생 감수하기’, ‘친정가족의 반대 무릅쓰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이 종교를 접하게 되는 과정은 우연히 길에서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일본 방송매체는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으나 교리를 듣고 동의하게 되어 종교생활을 시작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가정의 실천’과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등의 내용에 감동을 받았고 교리를 실천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종교의 결정 사항은

Table 1. Ethnography on Adaptation of Japa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Domain	Category	Attribute	Sub-themes	Themes
Practicing the doctrine	Accepting religious doctr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countering religion · Being fascinated with religious doctrine · Arming with belief and accepting everything · Accepting sacrifice to be forgiven as a enemy nation · Running a risk of the contrary of family 	International marriage with a sense of calling	Overcoming differences and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to achieve true family
	Preparing to practice the doctr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affection before marriage life · Learning Korean culture and language · Learning the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Arming with religious doctr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tting the power to endure · Making a chance as a recharge · Getting a guidance of life · Contributing to world peace 		
Accepting the difference	Enduring the inconvenience of rural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ing new life pattern · Doing hard agricultural work · Doing simple labour with economic difficulty · Accepting rural situation based on old people 	Bearing with sense of duty	
Redemption	Accepting Korean lifesty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vering Korean and dialect · Getting used to korean food · Understanding interference and a hard-hitting speech 		
	Enduring host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during neighbor's refused admittance · Enduring school parent's a disapproving manner · Enduring anti-Japan sentiment of family 		
	Comforting Korean a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an apology for ancestor's sin · Devoting to Korea' rural 		
True home	Standing against fear of raising the k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an apology for children's anti- Japan sentiment · Explaining about historical background and international situation · Enduring children's a psychological scar · Agonizing about Japanese language education · Bearing many children to cultivate sociality · Delivering a message of hope 	Making a living substantively	
	Keep a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ing with serving husband's parents faithfully · Compromising to keep a home · Preventing divorce to keep a home 		
Confronting reality	Worrying about change of nation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lerating discomfort according to hold nationality · Living as a Korean by changing nationality 		
	Keeping your mind from suff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parating between ancestor's problem and self · Blocking off in sentiment · Maintaining neutral position between two nations 		
	Participating initiative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cipating social hobby activities · Participating religious activities to consider individual situation · Participating community volunteering available 		
	Mutual understa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eiving support as not a fault of migrant's female · Feeling thanks as neighbor's Japanese language use · Understanding of anti-Japan sentiment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였다.

한국농촌총각과의 결혼 역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단이 정한 방식에 따랐고, 결혼의 목적에는 전도활동도 있었다. 정보제공자들은 교회를 통해 한·일 역사를 배웠고, 역사적으로 일본의 위정자들이 한국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참가정을 이루고 조상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자녀는 양국을 미워할 수 없게 되어 한·일 갈등이 줄어들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보제공자들의 교리에 대한 강한 신념은 친정부모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택을 고수하였다. 친정부모의 반대하는 이유는 한·일 간의 불편한 관계, 통일교에 대한 편견 그리고 먼 타국이라는 것이었다. 정보제공자들의 대부분은 종교를 접하면서 내성적인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우리도 여기 오기 전에 일본 교육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고 교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했는지 교육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원수나라잖아요? 원수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서 봉사해야 한다고 배우다보니 이렇게 오게 됐어요. 뭐 인정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구나! 했어요.(정보제공자 5)

‘교리실천 준비하기’는 ‘결혼생활 전에 애정 쌓아가기’, ‘한국문화와 언어 습득하기’, ‘한·일 역사 배우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대부분 1990년 초에서 2000년 사이에 합동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에 바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0개월 정도를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편지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한국의 문화, 한국어,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갈등 등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준비하였다.

축복식을 하고 일본에서 다시 40개월 정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선 예전에 그런 법이 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편지 주고받고 남편이랑 연애도 하고, 바쁘지만 저희는 본심생활(선교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교육과 순결에 대한 교육도 배워요.(정보제공자 1)

‘교리로 무장하기’는 ‘버틸 수 있는 힘을 받기’,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살아갈 방향을 제시받기’,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로 확인되었다. 결혼 초창기에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시댁식구

들이 함께 교회에 매주 나갔고 일 년에 한 두 번씩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종교생활을 하였다. 그 외에도 전도활동을 위해 마을마다 다니는 등 가정생활 못지않게 종교 활동에 몰두하였다. 정보제공자에게 종교생활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 한·일 간의 갈등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제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회는 종교의식의 장소이면서 사교의 장소였다. 연구자는 예배가 끝날 즈음에 교회를 방문하여 목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신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신도들은 한 상에 4~5명씩 둘러앉았고 초등학교 정도의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한식으로 식사를 하였다. 자녀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성인 신도들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대화를 나눴다. 이때의 대화는 면담이나 지역에서 만날 때와는 사뭇 달랐다. 얼굴 표정에 생기가 있었고 수다스럽다 할 정도로 말도 빠르고 많았다. 정보제공자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스트레스 해소와 위로가 되었다. 정보제공자 중 일부는 약 10년 전에 교회에서의 갈등으로 더 이상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때 대부분의 남편들도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들은 청소년이 되면서는 거의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교주의 사진을 거실 중앙에 걸어 놓고 있었고 교리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신앙 같아요. 믿음, 믿음은 눈에 안보이잖아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결혼해서 어려운 게 많지만 기도를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정보제공자 8)

2. 차이 수용

정보제공자의 적응의 두 번째 의미는 한·일 간의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이며, 차이 수용의 범주는 ‘농촌생활의 불편 겪어내기’와 ‘한국생활양식 수용하기’이다. ‘농촌생활의 불편 겪어내기’는 ‘새로운 생활방식 터득하기’, ‘힘든 농사일하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순노무하기’, ‘노인 중심의 농촌 환경 수용하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의 대부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농사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고 결혼해서 입국할 때의 나이가 20대 전후로 어렸다. 정보제공자들은 처음 한국농촌에 왔을 때, 소가 쟁기질을 하고 부엌에는 가스레인지가 없어 장작불을 피웠으며 냇가에서 빨래를 했다.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교통편인데, 길은 비포장도로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몇 십 분을 걸어 나와야했고 버스는 자주 오지 않았으며 운전기

사는 불친절했다.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대화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층을 만나기도 어렵고 시부모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했고,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번기가 지나면 근교 공장에서 단순노무를 하는 등 농촌에서의 불편을 겪어내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농촌 생활의 불편이 있었지만 정보제공자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고 수용할 수 있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였다.

그때 처음으로 물신(물에서 신는 신발)이라는 것도 신어 봤어요. 물신이 뭔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농사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때 일이 바쁠 때라 일 안하면 뭐라고 하시고 또 집 바로 옆에 큰 형님도 계셔가지고 아침부터 어디 일하러 가자고 하면 말도 못 알아먹고 따라가야 해요. 고사리 판다고 산에도 올라갔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내려 오고,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는 길도 없는 데를 막 가니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정보제공자 5)

‘한국문화 수용하기’는 ‘한국어와 사투리 배우기’, ‘한국음식에 익숙해지기’, ‘참견과 직설적인 표현 이해하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결혼생활 전에 한국의 언어, 문화, 한·일 역사 등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사투리, 음식 특유의 냄새, 직설적인 언어 표현 등이 힘들었다. 정보제공자들이 경험한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이웃에 살고 있는 시부모의 친구나 친척들이 연락도 없이 불쑥 방문하거나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인의 태도가 초창기에는 낯설기만 했지만 점차적으로 친근함의 표현이고 정(情)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엄청 간섭을 하니까. 상대는 호의인데 저한테는 간섭이 심하니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뭐 가르쳐 주시고, 자꾸 말 시키고, 놀러오고 그 때는 시어머나가 계셨으니까. 일본에서는 사이가 좋으면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을에서 재밌게 살아요.(정보제공자 7)

3. 대신 속죄

정보제공자의 적응 세 번째 의미는 과거 일본의 조상들이 저지른 역사적 잘못을 대신 속죄하는 것이며, 범주는 ‘적대감 감

수하기’와 ‘한(恨)을 풀어드리기’이다. ‘적대감 감수하기’는 ‘이웃의 문전박대 감수하기’, ‘학부모의 따가운 시선 감수하기’, ‘가족의 반일감정 감수하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결혼 초기부터 전도활동을 위해 2인 1조로 농촌마을을 다녔고 전도를 목적으로 농촌총각과 일본여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이 방문 시에 면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소용없는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는 물이나 소금을 뿌리는 등 박대를 하였다. 또한 광복절, 한·일 운동경기, 한·일 간의 정치적 문제 등이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감수했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바랐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주시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일본인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생각에 불편하고 거북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도 반일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했고, 일제 강점기 때 부역을 했던 시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이웃의 친구와 일본에 대해 비난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그럴 때마다 위축되고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봉사하러 왔는데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었죠(웃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일본에서 한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인들이 나쁜 일을 많이 했구나 생각했어요(웃음). (정보제공자 1)

‘한(恨)을 풀어드리기’는 ‘조상 대신 사죄하기’와 ‘한국농촌에 헌신하기’로 확인되었다. 입국 초창기에 정보제공자들 중 일부는 교리에 따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조상이 지은 죄를 대신 사죄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을마다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또한 8·15 광복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한복을 입고 읍내 장(場)에서 조상을 대신하여 사죄한다는 의미의 큰 절을 불특정 다수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시부모의 병수발을 도맡아 했고 지역 어르신들의 식사도 챙기고 관광도 시켜드리는 등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봉사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감정이 덜어지기를 바랐다.

“저 일본에서 시집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저희 조상님들의 잘못이 많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열심히 남편에게도 잘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해드리고 지역 어르신들께 열심히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다.”고 인사해요.(중략) 저희 나라 조상님이라고 해도 우리 핏줄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런 과거를 지울 순 없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겠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바로 풀 수는 없지만 시간 걸려서라도 우리가 한국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정보제공자 8)

4. 참 가정

정보제공자의 적응 네 번째 의미는 참 가정을 만드는 것이며, 범주는 ‘양육의 두려움과 맞서기’와 ‘가정 지키기’이다. ‘양육의 두려움과 맞서기’는 ‘자녀의 반일감정에 사과하기’, ‘시대적 상황과 국제적 배경 설명하기’, ‘자녀의 심리적 상처 감수하기’, ‘일본어 교육에 눈치 보기’, ‘다자녀로 사회성 길러주기’, ‘희망적 메시지 전달하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자녀가 많으면 자녀들 간의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교리에 따라 평균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 자녀들이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으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을 우려했고 일본어 교육도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눈치로 정보제공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르치지 않았다. 자녀는 하느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녀들이 어릴 때는 전도활동, 시부모 병수발 그리고 경제적 활동 등으로 자녀를 제때에 돌보지 못했고, 자녀가 학교에서 한·일 관계로 힘들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시간이 지난 뒤에 알았다. 자녀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질문을 할 때는 정중하게 일본 위정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자신이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국제적 배경을 설명하여 자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없게 종교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웃음). (중략) (한·일 역사) 애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죄가 있는 것 아니고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이 힘든 건 딱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방문을 하면 선생님께서 저한테 일본국적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정보제공자 1)

‘가정 지키기’는 ‘시부모 봉양하면서 함께 살기’, ‘가정을 위해 서로가 양보하기’, ‘가정을 위해 이혼하지 않기’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정보제공자들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많은 제

사를 지냈으며 시부모의 병수발을 도맡아 하는 등 시댁의 문화에 맞추려고 하였다. 시부모의 병수발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에 대한 불평보다는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남편과는 성격과 양육의 차이로 갈등을 빚었지만 참가정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가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화가 나도 좀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이야기해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것은 결혼하면은 외도나 이혼 그런 거를 절대 하지 마라.(정보제공자 3)

5. 현실 직시

정보제공자의 적응 다섯 번째 의미는 종교적인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며, 범주는 ‘국적변경 고민하기’, ‘고통으로부터 마음 지키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그리고 ‘상호 이해하기’이다. ‘국적변경 고민하기’는 ‘일본 국적 고수에 따른 불편함 견디기’, ‘국적 변경하여 한국인으로 살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은행과 관공서를 이용할 때 일본의 국적이 가장 불편했고 병원 등과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자신의 일본 이름이 호명될 때는 순간적으로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면서 긴장하고 눈치를 보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정보제공자 중 2명만이 국적을 변경했고 그 중에서 1명은 한국이름으로 개명도 하였다. 이들은 일본 국적과 이름이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고 한국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서 변경하였다. 반면에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본을 방문할 수 있고 일본에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적이라 관공서 이용이 불편해요. 통장 만들 때도 이름이 길다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중략) 귀화를 하면 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일했으니까 연금도 있어서 그것도 포기하기 아까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자주 일본도 가고 싶고, 아무래도 일본 국적이면 일본 가기 편하니까.(정보제공자 7)

‘고통으로부터 마음 지키기’는 ‘조상의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기’, ‘마음 차단하기’, ‘양국 간의 중립적 입장 유지하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끝없는 양국 간의 갈등과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에 마음을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

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의 문제라고 자신과 분리시켜 생각하기도 하고 양국의 독도문제, 운동경기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자신을 보호하였다.

약간 마음을 닫거든요. ‘아무것도 느끼지 말자’라는 거 있어요.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잖아요. 한국 이기면 괜찮은데 그래도 아~일본 졌구나! 약간 서럽죠? 그래도 일본 이기면 아, 일본한테 나쁜 감정 생기는 거 아닐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 이겨도 괜찮다. 영화 봐도 그냥 그런 영화가 있다.(정보제공자 4)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는 ‘지역사회 취미활동에 참여하기’, ‘개인사정 고려하여 종교 활동하기’,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봉사 참여하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지역민들이 정기적으로 마을 청소, 농번기에는 공동작업, 마을 공동행사 등을 함께 준비하는데, 이러한 모임에 경제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것을 상당히 미안해했다. 그러나 차츰 지역사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였고 여가시간에는 지역의 문화·자치센터 등에서 한(韓)춤, 국악, 국궁, 붓글씨 등 취미활동을 하면서 심신의 활기를 되찾았다. 정보제공자의 대부분은 요통, 이석증, 결석, 위장관의 문제,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은 심신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갱년기와 겹치면서 더욱 힘들어 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심신의 문제로 병원치료와 상담을 받기도 하고 취미생활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했던 거 같고 그러다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사람들 하고 만나서 방문하고 마을에 가가지고 봉사 활동 해드리고 청소를 하거나 해요.(정보제공자 10)

‘상호 이해하기’는 ‘결혼이주여성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지 받기’, ‘일본말로 친근감 표시에 감사하기’, ‘반일감정 이해하기’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이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을 이해하고 한을 풀어드린다는 마음으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정보제공자를 위로하는 주민도 있었고, 일제 강점기 때 배운 일본어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주민들도 있어 지지와 위로를 받았다. 정보제공자의 경우 일본어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강점기 때 강제로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연민과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옆 동네에 어르신에게 갔는데 제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시니까 한복을 입고 높은 모자를 쓰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일본에서 시집왔다고 인사하니까 어르신들이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저희 조상님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눈물을 보이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조상님이 잘못했지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셨어요.(정보제공자 8)

정보제공자의 적응의 의미를 토대로 적응의 과정을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었다. 1단계는 통일교를 접하면서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리로 무장한 ‘소명감으로 국제결혼하기’이다. 종교의 영향으로 세계평화와 참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결심한 시기이다. 2단계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일본의 조상을 대신하여 속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기’이다. 마지막 3단계는 한·일 갈등을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성장하고 있는 자녀와 가정생활에 집중하는 ‘실제적으로 살아가기’이다.

논 의

본 연구는 농촌거주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신간호학적 접근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보제공자의 적응의 의미는 교리를 실천하는 것, 한국농촌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것, 일본의 조상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것, 참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다. 문화적 주제는 ‘한·일의 차이와 갈등을 수용하고 참 가정을 이루기’이며, 적응과정은 ‘소명감으로 국제결혼하기’, ‘사명감으로 버티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기’였다.

본 연구결과 정보제공자들은 한·일의 차이와 갈등을 수용하고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소명감으로 국제결혼하기’로, 정보제공자들은 종교를 만나고 교리를 접하면서 참 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원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촌총각과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실제 결혼생활은 결혼식 후 평균 2년 후부터 시작됐고 떨어져 있는 동안 한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한·일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통일교를 통해 결혼한 일본인 여성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6,7,9,23]. 해방 전까지 한국에 온 일본인 여성들은 근대 교육을 받은 엘리트 신여성으로서, 미개한 조선여성을 ‘계몽’시켜야 하는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러한 사명을 완수할 것을 주창했다면[24], 통일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일본인 여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만행을 용서받아 한국인의 한(恨)을 풀어주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참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친정가족의 반대도 무릅쓰고 한국의 농촌 남자와 결혼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사명감으로 버티기’로, 정보제공자들은 농촌생활의 불편함과 문화적 차이를 감수하고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농사일과 단순근로로 가정경제를 도왔다. 한편 일본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결혼이주여성 역시 친정부모의 반대, 일본 농촌생활의 불편함, 고부갈등, 한·일 역사에 따른 반한감정 등[25]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은 시부모와 갈등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시부모의 병수발을 하면서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거나 심지어는 술만 마시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힘든 상황을 표현하면서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지속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제공자들이 조상의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인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의 결과라고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힘든 상황을 하느님이 주신 기회[9,18], 가족통합을 위해 가부장적 문화에 순종하고 한국사회에 동화하기 위한 노력[8,9,26], 그리고 친정의 지지기반 상실로 시댁 가족들로부터의 소외[6,14] 등으로 해석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생활경제의 어려움 외에도 한·일 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간접적인 한국인의 적대적 정서와 태도를 참고 견뎠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본인 여성들이 반일감정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축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6,7,9,12,14,23]. 그러나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조상을 대신한 속죄행위는 본 연구에서 독특하게 발견되었다. 일본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한·일 간의 갈등관계에 따른 영향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농촌의 경우에는 이웃 간의 경계가 모호해 굳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쉽게 노출되는 경향과 조상을 대신한 속죄행위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농촌적응을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들의 대부분은 국적변경과 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국실태조사결과와 동일하다[2]. 정보제공자의 국적 미변경의 이유는 친정 부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본국 방문 시에 편리하고 일본에서도 자국민으로서의 의료 및 복지적인 혜택

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결과는 Jo [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대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국적을 변경하고 개명을 하여 일본인으로 살고 있어[25],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일본인 결혼이주 여성들이 장기거주에도 불구하고 귀화를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한국문화에 대한 거부나 귀향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연구자가 만난 일본인 여성들은 한국의 생활양식과 농촌의 불편을 극복하고 현재는 도리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인 간에 결혼을 했을 때 성과 고향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국제결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본인 여성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겠다. 정보제공자들은 한국농촌에서 참 가정을 이루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70.0%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갱년기와 겹치면서 더욱 힘들어 하였다. 이는 전국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건강상태[2]보다 약 2배 정도가 양호하지 않았다. 종교생활과 취미생활로 어느 정도 극복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 하겠다.

마지막은 ‘실제적으로 살아가기’로, 자녀의 양육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사회봉사와 종교 활동은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했으며 한·일 관계로 인한 계속적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실제적 생활은 한국의 일반가정에서의 생활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서로의 희생, 그 중에서도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었다[18]. 정보제공자들 역시 전환의 계기를 자녀로 보았고, 자녀는 한국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고 대화의 상대이자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전국 다문화가정 실태조사[2]에서 일본인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이 다른 출신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교를 통해 일본인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의 반일정서와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식하여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율이 낮다[9]고 하였다. 이는 통일교를 통해서 온 일본인 여성들이 처음부터 지역사회 참여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반일감정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인식 그리고 개인적 사정으로 지역사회 참여율이 저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자들은 수십 년간 한·일 갈등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위정자의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는 등 능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처행위는 일본인 어머니를 둔 자녀들에게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는데, 자녀들은 한·일 관계에서 가해자인 어머니의 나라와 동일시하면서 위축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점차 ‘감정 차단’, ‘분리’,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13]. 이와 같은 한·일 간의 갈등관계가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과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은 누적된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26], 자녀들이 한국 보다는 일본을 더 선호[11-13]하게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기’는 Ishii 등[11]이 보고한 일본인 여성들이 장기간의 거주를 통해 문화정체성의 위기와 극복을 반복하며 능동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Berry [5]가 말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통합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Berry [5]는 이주민 집단의 문화적응 양상을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4개로 분류했는데, 한 축은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의 유지 여부이고 또 다른 축은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여부이다. 두 축 모두에 적극적인 경우를 ‘통합형’, 그 반대는 ‘소외형’, 모국사회에 적극적인 경우를 ‘분리형’, 주류사회에 적극적인 경우를 ‘동화형’이라고 하였다. ‘사명감으로 버티기’ 단계는 종교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맞추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동화형’에 가깝고 ‘실제적으로 살아가기’는 한국에서 참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일본의 문화와 국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통합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에는 도시와 농촌, 결혼의 동기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촌생활의 불편함, 문화적 차이,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종교적 신념, 한·일 간의 관계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농촌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로 신체적·심리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 참 가정을 이루겠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다.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일관계에 따른 영향은 도시와 농촌, 결혼의 동기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동화, 영주권 획득, 국적변경, 개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의미해석이 다양하다.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결혼의 동기, 거주 지역, 반일감정 경험 그리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전국실태조사에 비해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

료인들은 이들의 건강상태 개입 시에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지역 적응의 의미와 적응의 과정을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밝혀내고자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농촌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농촌 지역은 이웃 간의 경계의 모호성으로 일본의 개인주의 문화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가 더욱 확인됐다. 또한 종교를 통한 결혼인 만큼 교리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생활하였지만 한·일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점차 삶의 실재를 깨닫고 종교적인 영향을 넘어서 주도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갈등에 있어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여 참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거주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적응에 있어 사회문화적 영향과 삶의 실재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접근과 개입이 평균적이 아닌 출신국가별 문화적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ORCID

An, Hyo-Ja

<https://orcid.org/0000-0002-1890-4062>

REFERENCES

1.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7. Online [Internet]. 2018 [cited 2018. May 5]. 2017(12): 35 p. Available from: <https://goo.gl/aA9wC1>
2. Chung HS, Kim YS, Yi TM, Ma KH, Choi YJ, Park GY, et al.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earch Report.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January. Report No. 2016-03.
3. Yeo JC. The formation and cultur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Culture. 2010;44:351-388.
4. Kang YM, Shin HJ. A qualitative study on the successful adjusting process of immigrant wiv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0;11(4):1393-1410.

5. Berry JW.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05;29(6):697-712. <https://doi.org/10.1016/j.ijintrel.2005.07.013>
6. Lee JH. A study of life history on Japanese immigrant wives in Korea.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2012;35: 233-253.
7. Jo HM. Hybridized identity of marriage migrants from Japan.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2009;45:521-544.
8. Kubo M. Cultural adaptation and mental health of Japanese immigrant women married Korean [master's thesis]. [Seoul]: Sangmyung National University; 2015. 163 p.
9. Nam CM. A study on the influence that a religion affects the integration of family and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in a multi-cultural home-focused on the case of Japanese female believers in Tongilgyo who married Korean man.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2017;56:249-265.
10. Yim YE, Lee HJ. A study on the model of acculturation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2013;14(4):187-205. <https://doi.org/10.14363/kaps.2013.14.4.187>
11. Ishii H, Min KY, Seongok YH, Lee YS. Investigating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Japa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5;8(2):107-143. <https://doi.org/10.15685/jms.2015.08.8.2.107>
12. Suh YI, Han JH. A study on the cultural psychological phenomenon experienced by married immigrant Japanese women during parent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6;17(5): 465-486.
13. An HJ, Cho SS, Cho WT. The experience of history education related to Japa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Japanese mother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011;19(3):47-75.
14. Lee YN. Qualitative study on 'becoming a mother'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centered on Japanese mothers.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2015; 20(1):65-85.
15. Kim J, Park SH, Kim M, Kim SY. Exploring issues and strengths of cross-cultural marriage among Korean immigrant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017;38(10):1095-1114. <https://doi.org/10.1080/07399332.2017.1360301>
16. Aamodt AM. *Ethnography and epistemology: generating nursing knowledge*. Newbury park: Sage; 1991. 344 p. (Morse JM, editor.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a contemporary dialogue*. <https://doi.org/10.4135/9781483349015.n6>
17. Leininger MM.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Orlando FL: Grune & Stratton; 1985. 361 p.
18. Moon SM. *Peace world love*. Paju: Gimmyoung Publications; 2010. 383 p.
19. Mistuteru Y. *Big hope*. Lee KG, translator. Seoul: AK Communications; 2006.
20. Lee HH. Study on community particip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migrant women of in rural. Paju: EdamBooks; 2010. 238 p.
21. Spradley JP.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247 p.
22.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1985. 416 p.
23. Kim KJ. Thoughts on multicultural family issues in a new religion-focusing on Japanese immigrant wives of the unification church. *Journal of New Religions*. 2011;24:327-361.
24. Ahn TY. A woman of empire who lived in the colony: colonialism and gender seen through Tsuda Setsuko's life in colonial Korea.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008;24(4): 5-33.
25. Yang AI, Lee HS. In the late 1980s, marriage immigration in Japan, adjustment, depression, and trauma of Zainichi New Comer(2)-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great east Japan earthquake. *Journal of East Asian Cultures*. 2017;71:295-321.
26. Jung SJ. A Phenomenological study on family conflicts of Japanese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family rituals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2018. 226 p.